

분노 테라피? 제니 홀저 테라피!

February 2021 | 최지혜 기자

PEOPLE

분노 테라피? 제니 홀저 테라피!

국제갤러리 9년 만의 개인전, 문자로 어루만지는 상처



제니 홀저 / 1950년 미국 오하이오 출생. 로디오빌랜드 디자인으로 석사 졸업. 발비오 구겐하임미술관(2010), 국립현대미술관(2019), 영국 테이트 모던(2019), 영국 블랙닝뮤지엄(2017) 등에서 개인전 개최. (T E X T) 300여 점, 뉴욕 국립현대미술관(2016), Gbye Bye American Film(마에노스미에리스 라틴아메리카미술관 2012) 등의 단편 참여. 베니스비엔날레 황금사자상(1990), 세계경제포럼 크리스탈볼상(1990) 수상. 현재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

‘용감한’이라는 행동사에 꼭 맞는 작가 제니 홀저(Jenny Holzer). 예술로 세상을 구원하고 대중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싶은 예술가는 많지만 그 판단지를 제니 홀저만큼 진짜 실행한 이가 있을까? “PROTECT ME FROM WHAT I WANT! 내 욕망으로부터 나를 보호해라”. 1987년 제니 홀저의 문장으로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이 환하게 물들었다. 그가 현재까지 가장 아끼는 기념비적 문구다. 욕망과 사치의 상징인 욕과 광고 전광판이 공공미술의 장으로 탈바꿈한 순간이다. 세기가 한 번 바뀌었지만 도시, 건물, 자동차, 스마트폰 등 사회적 의미의 어택이 존재하는 곳 어디든 그의 경구가 울려 퍼진다.

40여 년 동안 정치, 역사, 개인에 경종을 울린 텍스트로 동시대에 의미심장한 흔적들을 남긴 제니 홀저. 그가 오늘날의 불의를 고발하는 신작을 가득 들고 개인전 <생생한 공상을 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IT'S CRUCIAL TO HAVE AN ACTIVE FANTASY LIFE)>(2020. 12. 10-1. 31) 국제갤러리를 열었다. 전시는 최초 공개되는 수채화 연작 36점, 검열 회화 신작, 대리석 벤치 그리고 대표작 LED 전광판 설치작품으로 꾸러졌다. 작가의 무거운 주제 의식을 환속하는 긴시 제목은 지독한 현실, 지루한 세계에서 탈출하려는 공경의 시선이다. 전시는 두 파트다. 자연광 아래 수채화 연작이 벽을 가득 채운 K2 공간과 LED 전광판이 비백 울라네라는 K3 공간. 검열 회화와 경구가 새겨진 대리석 벤치는 두 전시장 사이사이를 차지해 긴장의 끈을 이끈다.

그간 제니 홀저는 1970년 이후 회화 작업을 하지 않았지만,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 정무가 트럼프 당선을 도왔다는 특검문의 수사 보고서 “올리 보고서”를 접하며 다시 이질 앞으로 돌아왔다. “수채화 작업들은 지지부진하고 극단적이며 분노하기나 슬퍼합니다. 트럼프는 대단히 영리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채화는 무리합니다.” “올리 보고서”의 좌절, 분노, 원통함의 정서를 재료의 부드러움과

위 왼쪽: 제니 홀저 개인전 <생생한 공상을 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전영 오른쪽: <Selection from Truisms: THE MOST PROFOUND THINGS ARE INEXPRESSIBLE> 수채화(트럼프 보고서) 43.2×63.5×40.8cm(해당 2015 이후: 80여여 번의 재규구 가능) 실수한 것은 확인할 수 없는 반이다”는 1977-79년 사이에 작성했다.



남만으로도 속속 눌러 답았다. 마치 커피를 열어 내용을 숨기려 한 기밀문서 같은 수채화 연작 <Dirty on HILLARY CLINTON(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추문)>(2020), <Ultimate Sin(궁극의 죄악)>(2020), <AT TRUMP TOWER(트럼프 타워에서)>(2020)는 보고서 자체에서 찾아온 우연히 발견된 내용을 소재 삼은 작업이다.

제니 홀저의 검열 회화 연작은 반짝거리기는 갈매기에 정치적 의미를 숨겼다. 작가의 손을 거쳐 추심사로 변신한 문서는 정권에 휘둘릴 기밀 만한 부분은 모두 삭제된 공개 보고서의 불리한 진실을 드러낸다. 작업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는 예술의 역할을 다하며 영연히 존재하는 사건의 충격을 가시화한다.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언어를 태대로 선택했다는 제니 홀저. 그래서인지 그의 문장은 통쾌함을 넘어 아찔하기까지 하다. 전시에 출품된 4점의 LED 전광판 중 국제갤러리 전시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신작 <TRUISMS(경구들)>(2020)에서 그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 대문자로만 이루어진 영문 문장과 “가장 심오한 것은 표현할 수 없는 것”, “자기 훈련은 정칙함을 유지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같이 어색한 한국어 문장이 반갑게 나온다. 영연과 막막 사이를 오가는 텍스트와 공간은 매우는 불규칙한 기계음은 무의식의 세계를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착석할 수 없는 대리석 벤치 상판에 새겨진 문장도 귀찮을 때였다. 가히 현대인의 경성문이다. 관객은 흐릿하게 쓰인 <SOLITUDE IS ENRICHING(고독은 풍요롭게 한다)>(2019), <IT IS IN YOUR SELF-INTEREST TO FIND A WAY TO BE VERY TENDER(매우 상냥해지려는 것은 당신의 시리사욕을

채우는 일이다)>(2015)를 명상하듯 읽으며, 현대 사회의 고립된 개인과 화합의 기회를 직시한다.

1990년 베니스비엔날레 미국관에 최초의 여성 아티스트로 입성, 같은 해 항공사자살을 거머쥔 명예와 권위를 누린 작가지만 그의 예술세계는 한순간도 평화롭지 못했다. 자국적인 특종 소재나 낭만적인 유토피아를 찾아 떠나지 않았기 때문. 그는 늘 돌리다 잃고 증시한 세상의 작업에 떠다니는 텍스트처럼 소란했고 치열했다.

“A MAN CAN'T KNOW WHAT IT'S LIKE TO BE A MOTHER(남자는 엄마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없다)”는 작가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경구가 아닐까. 예나 지금이나 엄마의 삶은 변함없고, 여자의 삶이 스스로에 의해 쓰인 적 없으니까. 그런 제니 홀저에게 나와 타자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많이 변화했지만 여전히 백인 남성 위주의 미국 사회에서 아내, 엄마이자 여성 아티스트는 약자이기에 그래서 제니 홀저는 아직도 할 말, 하고 싶은 말이 남는 것이다.

“분노 요법은 작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울려 기성을 맞아 고개가 지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의 작업은 오늘을 존엄히 살아가는 이들을 끌어안는다. 상이 원래 희극과 비극의 경계에 있다. 제니 홀저의 작업은 위트와 위엄 사이를 줄타기한다.

제니 홀저는 <생생한 공상을 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로 지독하던 2020년을 향한 숨겨진 보냈다. 새로운 해, 작가의 캘린더는 흥미로운 상상으로 꽂 찼다. 트럼프가 남긴 최악의 트윗 200여 개를 모아 <COURSE TABLETS(저주 태블릿)>를 완성해야 하고, 발비오 구겐하임미술관과 비젤미술관의 협업을 기다리고 있다.

